

일반  
논문

##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의 출현

오혜민 \_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논문요약

이 연구는 올림픽을 앞두고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외신 지적이 기사화된 1988년부터 ‘성덕 바우만’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1990년대 후반까지 해외 입양 관련 주요 사건에서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펴본다.

해외 입양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지위를 박탈시킨 과거, 외신의 지적과 함께 국내 입양을 해외 입양의 해답으로 제시한 과정, 이후 유폐된 해외 입양인의 귀환과 ‘뿌리 찾기’ 서사에는 ‘선진국’의 위상을 둔 분투의 방식이 읽힌다. 이 과정에서 여러 책임 중 어떤 것이, 누구의, 어떤 성질의 문제로 정의되는가의 문제가 읽힌다. 추상적인 ‘선진국’과 ‘온정적 한민족’이라는 집단 이미지와 함께 해외 입양은 현재의 ‘국가’와 동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으로 전가된다. 해외 입양인의 위기 극복 성장, 이해, 용서의 서사 역시 칭송의 형태를 통해 해결의 묶음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 **주요어:** 해외 입양, 국내 입양, 낙태, 입양인, 고아 수출국

## 1. 시작하며

본 연구는 올림픽을 앞두고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외신의 지적이 기사화된 1988년부터 ‘성덕 바우만’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1990년대 후반까지 각 시기별 주요 사건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펴본다.

이 이야기는 ‘낙태죄’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2019년 4월 이른바 ‘낙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2020년 말 ‘낙태죄’의 자동 폐지가 이뤄진 시점에 이르기까지<sup>1)</sup> ‘생명권’에 대한 논쟁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경합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이 경합의 과정 이전에 생명권과 권리를 정의하기 위한 합의, 이 권리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느냐에 대한 진단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을 살피던 중 논의를 흐릿하게 만드는 모호한 기준 하나가 지속

- 
- 1) ‘낙태죄’는 형법 269조 1항(1953년 제정, 1995년 개정), ‘임신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 최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 등 시술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정겨운 2018, 121). 지속적인 논의 끝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4명 헌법불합치, 3명 단순위헌, 2명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으며,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한겨레 2019/04/11). 2020년 말까지 입법된 법안이 없어 ‘낙태죄’는 자동으로 폐지되었으나,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맥락에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줄 법 역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한겨레 2020/12/21).

하여 관찰되었다. ‘생명권’을 정의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선진국’이 반복하여 등장한 것이다. ‘선진국’은 낙태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르는 기준(동아일보 2017/11/01; 뉴스스 2017/11/27), 여성이 임신 중단할 권리를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안전한 임신 중절을 위한 절차·허용 범위 등을 형법·낙태법 등에 규정”한 사례로 등장했다(경향신문 2018/05/23; 여성신문 2018/06/01). 그리고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에게 월급 압류, 운전면허 정지, 여권 압류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사례(가톨릭평화신문 2018/05/20), 선진국에 비해서 한없이 미약한 복지시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역시 활용되었다(양현아 2018, 240). 문제는 한국과의 비교군으로 곧잘 제시되는 이 ‘선진국’이라는 표상이 각 입장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장치로만 활용될 뿐, 추상적인 비교의 이미지를 넘어 명확한 현실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기준은 강조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에 따라 계속해서 다른 의미를 얻었다. 1994년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인구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자(동아일보 1994/09/04), 1972년에는 다른 임신 중단 방법보다 낙태 수술이 안전하다는 근거를 강화하고자 활용되었다(동아일보 1972/03/28). 북미와 유럽, 일본 등을 포괄하거나 OECD 국가 등을 포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단어 ‘선진국’은 애매모호한 수사였음에도 재생산 권리와 연관된 각 국가별 상황 및 정책의 효과와 한계들을 짚어봐야 할 필요성을 제거한 채 각 주장을 강조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선진국’이라는 기준은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모호

한 비교군이 생명과 양육 책임 등에 관한 논의에 개입되면서 생략되거나 강조되어 온 주장에는 무엇이 있는가? 결과적으로 이 논의의 과정에서 권리의 수호자 혹은 권리의 제약자로 등장하는 국가는 결국 어떤 책임을 부여받게 되며, 여기서 회피된 책임은 어떤 과정을 통해 소거되는가?

위의 질문을 이어가던 중 낙태죄 존폐 논의의 장을 잠시 떠나, 공통 핵심어들이 결부되어 있는 또 다른 주제인 입양을 떠올렸다. 임신 중단과 입양은 모두 개인의 결정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담아낸 논의였으며, 전자는 출산 전의 결정을, 후자는 출산 이후의 결정을 다루고 있었다.<sup>2)</sup> 이 고민은 다시 국가의 위상, 국가의 역할, 국가에 대한 묘사가 중요한 것으로 서술되어 온 주제, 해외 입양을 조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전쟁 이후 ‘고아’와 ‘혼혈인’ 배제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해외 입양을 살펴보는 과정에 국가적 책임과 결부된 논의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제일 먼저 ‘고아 수출국’이라는 표현이 포착되었다. 1988년 초 외신보도를 통해 이 표현이 등장하고 나서야 해외 입양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비로소 통계자료가 공개되고 숫자를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그에 이어 국내 입양이 해결책으로 등장했다는 점, 시간이 흐른 뒤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인정받고자 분투했던 바로 그 시기 ‘한민족 공동체’로의 해외 입양인 인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본 연구는 해외 입양의 방식을 통해 ‘국민’의 지위를 박탈시켰던 과거,

2) ‘낙태’와 ‘입양’을 연구 주제로 함께 묶어낸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낙태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지로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한 이후 양육 위기를 겪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입양’을 언급한 연구 정도가 눈에 띄었다(신현호 2010).

국내 입양을 해답으로 제시하게 된 전환기,<sup>3)</sup> 그리고 이후 활발하게 유포된 해외 입양인의 귀환과 ‘뿌리 찾기’ 서사에서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자 분투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서울올림픽과 OECD 가입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던 시기 큰 화제가 되었던 두 사건을 중점적으로 조망한다. 이른바 “국민적 자존심을 해치는” ‘국격’ 저해 사건으로 지목되었던 1988년 ‘고아 수출국’ 외신 보도 시기 등장한 이야기(동아일보 1988/06/02), 다른 하나는 친부모 찾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해외 입양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된 1996년 성덕 바우만의 이야기다. 분석을 위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큰 효력을 발휘했을 것이라고 간주되는 사건 관련 TV 방송프로그램과 신문기사 등을 자료로 선정했다.<sup>4)5)</sup> 이 자료들에 담긴 주요 서사와 한국과 한국인의 묘사 방식,

3) 1950년대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혼혈인’의 국민권 박탈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사회부 산하에 국가 입양 전담기관을 설치, 해외 입양을 통해 고아와 ‘혼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당시, 해외입양의 대부분은 미국 입양이었다. 1960년대에는 해외 입양에 대한 북한의 선전 영향으로 해외 입양이 다소 감소하였다. 1970년대 들어 해외 입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체 입양의 약 75%를 차지했으며, 입양 지역도 미국에서 타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전두환 정권 당시 해외 입양은 ‘아동 매매’의 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김재민 2013, 239, 245; 2016, 299; 박선주 외 2014, 101-109; 박순호 1998, 77; 임영언·임채완 2012, 80-81; 프레시안 2017/09/12; 2017/11/15). 그리고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은 ‘세계한민족공동체’에 해외 입양인을 포함했다(임영언·임채완 2012, 85).

4) 1980년대와 1990년대 모두 신문/TV 보급률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각 서사가 유포된 방식상의 차이가 있었다. ‘고아 수출국’ 관련 내용은 신문 기사를 주 자료로 활용했으며, ‘성덕 바우만’ 서사는 인물 묘사가 주요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성이 있었기에 방송 프로그램을 주 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기사들을 보조 자료로 활용했다.

이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책임 논의를 살펴보며 이와 연관된 사건, 정책들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활용했다.

해외 입양 관련 서사 안에서 한국이 묘사된 궤적과 출산, 양육 책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 연구는 입양 정책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의 위상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된 어떤 성질의 문제로 해석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층위에 놓인 입양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며, 현재의 익숙한 논의 지형에 질문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및 이론적 토대

해외 입양을 다룬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해외 입양인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해외 입양인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 연구들은 문학 작

- 
- 5) 쇼이펠레는 프레임링(Framing) 개념을 토대로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탐색한다. 그는 프로파간다의 도구,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미미한 도구, 행동 대신 인식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기존 이론을 소개하며,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미디어와 수신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한다. 개인의 경험,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매스미디어로부터 해석된 선택들이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며, 프레임이 특정 가치, 사실, 요소 등을 강조, 길고로 보이는 것 외의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프레임을 구성하고 정보를 배치하는 언론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타입 등의 요소에서 비롯된 습관, 정치 집단, 권위 이해 집단 등의 외부적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 도구를 소개한다(오혜민 2019, 13; Scheufele 1999).

품 속에 드러나는 입양인의 정체성 혼란,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등을 포착하고 이 감정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이소희 2012; 오세웅 2010; Rasmussen 2010; 2018; 윤주희 2007, 전정식 2013). 다른 곁에서, 해외 입양인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양인 당사자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있었다. 이 연구들은 ‘뿌리 찾기’의 동기와 동인, 입양과 양부모에 대한 태도,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하며 입양국과 출생국의 상황 등의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했다(권지성·안재진 2010; 베리어 2013; 이미션 2002; 윤택림 2005; 유혜량·임채완 2016). ‘입양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찾아내고자 시도하는 이 연구들은 손상된 정체성에 대해 묘사하며, 화해 과정을 통한 ‘자아존중감’ 회복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의 잃어버린 조각” 등을 찾아가며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거나(윤택림 2005, 90), “이중국적 취득 후 합법적인 ‘초국가적 시민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보조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중국적’ 허용, ‘체류허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소희 2012, 65).

드물지만 ‘해외 입양인’이라는 특정 범주 집단의 특성보다 해외 입양인이 재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이 연구는 해외 입양이라는 소재가 처음으로 등장한 1959년 영화 <내가 낳은 김둥이>를 비롯하여 해외 입양을 다룬 한국 영화 32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한 뒤, 영화 <국가대표>를 주요 자료로 분석한다. 그러나 “서발턴 여성인 생모와 해외 입양인을 침묵시키며 대신 한국 주류사회가 말하고 싶고 듣고 싶은 해외 입양에 대한 주장을 재현”해 나가는 방식을 추적하는 이 연구는, 입양인과 생모를 구조적 피해자라는 위치에 고정함으로써

“소수자’의 ‘올바른 재현’이 필요”하다는,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다소 평이한 결론으로 마무리된다(유지영·Wagner 2013, 70-71).

해외 입양인 ‘당사자’보다 국가에 초점을 맞추며, 목표에 따라 그 방향을 바꾼 입양 정책의 특성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있었다. 이 연구들은 각 입양 정책의 특성과 변화 과정, 국가별 분포 등의 통계 자료 등을 소개하면서 해외 입양을 국가 폭력, 가부장제에서 비롯된 문제이자 결과로 서술했다. 그리고 국내 입양 제도 활성화, 한국 사회의 관심, 정부 지원, 이중국적 부여 등을 비롯해 현 입양 정책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보완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론을 내렸다(김재민 2013; 2016; 박순호 1998; 2007; 임영언·임채완 2012). 이 연구들은 해외 입양의 개괄적 흐름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볼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내고 보다 민주적으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디딤돌”(김재민 2013, 239)로 해외 입양인을 조망하면서도, 한국이라는 국가와 가부장제를 공고한 하나의 틀로 간주했기에 그 허구성이나 모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과정을 분석해 내는 식의 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안적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수자 인권 친화적 관점을 요구”(김재민 2016, 314-315), “해외 입양인에 대한 진정한 시선에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및 지원”(임영언·임채완 2012, 99)을 해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가족과 입양인 당사자, 입양 정책을 분석한 위의 연구들은 해외 입양을 국가로부터의 박탈이라고 보는 전제에서는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였



다. 그러나 국가적 시책의 결과가 오히려 새겨진 공간으로 입양인을 조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해외 입양을 통해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인’이라는 상징이 구성되는 과정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Tobias Hübinette)의 연구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2000년대까지의 해외 입양인과 입양을 주제로 한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각 시대적 배경과 정책의 변화 등을 짚어내며 다각적 분석을 시도한다(이삼돌 2008; Hübinette 2004; 2005, 휘비네트 외 2012). 특히 2008년 출간된 『해외 입양과 한국민족주의』 4장 “국가는 여성이다”는 국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연구로서 본 연구에도 많은 자료와 질문들을 제공해 주었다(이삼돌 2008, 159-197). 또한, 해외 입양인 ‘친생모’ 또는 ‘미혼모’에 집중하는 연구들 역시 소수지만 해외 입양이 이루어진 당시의 맥락을 파악하는 자료로서 눈에 띄었다. 신필식은 해외 입양이 불가피했다는 유기 담론과 국가가 자국민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라는 무책임 국가론으로 나뉘는 기존의 해외 입양 관련 연구들이 왜곡 혹은 간과해 온 존재로서 해외 입양 친생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1966년부터 1992년까지 해외 입양을 보낸 친생모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방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한다(신필식 2020). 근대 전환기, 근대 국가로의 성장기, 후기근대 시기 미혼 모성을 둘러싼 담론을 추적해 나간 권희정의 연구 역시 시기별 맥락과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을 보충해 주었다(권희정 2015; 2019).

본 연구는 서사구조의 전형성과 특정 정체성 안으로의 귀결 방식에 대

한 비판을 제기해 볼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스콧과 샹프로-두쉐의 논의를 참고한다. 주요 구문, 주요 양식, 서사 모델, 신화 등의 개념으로 서사 구조와 사회와의 관계, 상징적 재현의 방식을 고찰하는 샹프로-두쉐의 논의, 정체성이 환상에 불과한 동일성에 근거를 둔 개념이라는 스콧의 아이디어는 선행 연구들과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유도했다 (Scott 2001; Chanfrault-Duchet 1991). 당사자 재현을 통한 가시화와 인정의 정치를 결론으로 제시하는 기존의 연구에서 잠시 벗어나, “여기 지금 살고 있다”는 지점에서 “공통의 구조적 혹은 제도적 틀에 함께 겹쳐 있는 co-imbrication” ‘한국’이라는 공간적 틀에 보다 초점을 맞춰보았다(프레이저 외 2016, 441). 해외 입양 관련 주요 사건의 유통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본 연구가 낙태 관련 논의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태아 대 여성이라는 공고한 대립 구도 안에서 개인에게 귀속되어 온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를 넘어,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담론에 필요한 확장된 범위의 책임을 논하는 장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3. ‘1위 고아 수출국’이 된 올림픽 개최국

#### 1) ‘국가적 수치’를 강조하는 ‘1위 고아 수출국’ 타이틀

1988년 4월 21일, 서울올림픽을 앞둔 이 시기, 미국의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을 ‘고아 수출국’으로 보도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국내 신문 지면에 등

장한다.<sup>6)</sup> 이 기사들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서 88하계올림픽 주최국임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에서 정부의 은밀한 장려 아래 매년 미국 가정에만 6,000명가량의 어린이들이 입양되는 ‘유아 수출’이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에 입양된 모든 외국 어린이의 59%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한 것이었다(동아일보 1988/04/22; 경향신문 1988/04/22). 그리고 원 기사의 일부만을 취사선택하며 강조한 것은 경제 규모와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갖게 된 나라의 위상인 동시에 이 상황이 ‘외부자’로 간주되는 뉴욕타임스지에 실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sup>7)</sup>

여기서 인용되지 않음으로써 사라진 내용에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되기도 한 “다른 혈통을 가진 어린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과 관련된, 혈연, 혈통, 족보의 문제가 있었다. 혼외자와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 미비, 국가가 사회적 예산 집행을 피하고자 양육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 것,<sup>8)</sup> 국내 입양을 비난해 온 덕에 해외 입양 기관

6) 같은 해 프로그레시브 1월호에도 관련 내용이 기사화되었으며, 3월호 월간 말에서도 역시 기사를 번역, 출판하였다(Progressive 1988/01, 18-23; 말, 1988/03, 86-88). 그러나 여기 수록된 내용은 주요 일간지를 통해서 기사화되지 않았기에 분석 자료에서 제외했다.

7) 미하엘 쿤치크는 “세계 여론의 존재 내지는 속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는 세계 여론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포함해 세계 여론이라는 현상과 관련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만약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 여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고 행동한다면 세계 여론은 정치적 행동에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쿤치크 2008, 107-108).

8) 순혈 부계 혈통 질서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혼혈 아동과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미확인

들이 이득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해소할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원문에 등장한 “한국인들이 국가적 수치와 입양인들을 국내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장 중 ‘국가적 수치’라는 부분만 특히 강조되었으며, 한국의 언론은 이를 ‘고아 수출 1위’, 혹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The New York Times 1998/04/21).

이틀 뒤인 1988년 4월 24일 조선일보의 “고아 수출 세계 1위” 기사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앞의 기사들보다 상세하게 전달한다. 입양된 숫자 외에도 “한국에 4개의 입양주선기관이 있고 이 기관은 입양 어린이 1인당 4,000달러의 경비를 받고 있다”는 부분 역시 소개된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도 이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 언급했던 뉴욕타임스의 내용은 사라진다. 약간의 변형 역시 이루어진다. “해외 입양 어린이가 많은 이유는 가난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책임 없이 낳은 남의 아기를 입적해 기르려고 하지 않는 유교적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에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없던 “책임 없이 낳은”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낳은’ 행위자에 대한 비판의 어조가 ‘외신 보도’라는 사실이 주는 힘을 가진 이 기사의 한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이다. ‘고아 수출국’을 “고아 수출 세계 1위국”으로 다시 한 번 순위와 함께 강조한 이 기사

되는(친모의 존재가 확인된) 아동들에게도 ‘고아’ 신분을 부여한 뒤 해외로 송출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1950~1960년대에 걸쳐 갖춰졌다(권희정 2019, 103-105). 또한,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 양육의 권리나 도움을 받을 제도에 대한 설명보다 친권 포기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권희정 2019, 173-175; 프레시안 2017/11/21).

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감상으로 마무리된다(조선일보 1988/04/24).

일부 내용을 제거, 변형하거나 강조하며 이루어진 이 외신보도 전달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어린이날을 전후하여 이 기사들을 다시 언급하며 등장한 칼럼과 사설들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한국외대 언어학 교수 변광수<sup>9)</sup>의 칼럼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 길”이었다. 이 칼럼은 “최근 미국의 언론들이 올림픽과 관련하여 한국을 ‘고아 수출 세계 제1위국’으로 표현”했다는 당시의 보도 내용을 발췌하는 것으로, ‘1위’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서술된다. 여기서는 저자의 목격담이 덧붙여진다. “이러한 불명예는 ‘유럽’ 쪽에 가도 마찬가지”라며, “이른바 선진복지국가들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나라를 여행”하다 마주친 “3~4세의 어린애로부터 짙은 눈 화장에 담배를 꼬나 문 동양계 소녀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들 중 십중팔구는 한국의 고아임에 틀림없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먼 타국 땅에서 내 자식과 똑같이 생긴 입양아를 보게 되면 반가운 마음보다는 측은하고 창피한 마음이 앞서는데, “그들이 자랑스러운 어린이 문화사절단이 아닌 한국의 가난을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감상 역시 이어진다. 그는 이어 이 문제의 원인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

---

9) “스웨덴학 박사 1호”라는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스칸디나비아어학과 교수 변광수는 2005년의 기사에서도 자신의 유학생활 초기를 회상하며 “당시만 해도 6·25 전쟁과 입양 고아가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부였다”고 언급한다(한겨레 2005/02/06). 그는 스웨덴어 교재와 더불어 스웨덴의 복지시스템을 다룬 『복지의 나라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과 이웃하기』 등을 쓰며 사회복지제도의 자문 역할을 해왔다.

집중 현상이 젊은 남녀 간의 교제를 자유롭게 했으며, “범람하는 외래문화가 그들의 유흥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데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어 “미혼모들의 출산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는 “종교단체에 의존해 온 고아 양육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해법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이 “국위선양 못지않게 국위 손상을 예방 내지 해결하는 일에도 진력”하는 길이며, “우리도 ‘고아 수출 왕국’이라는 수치를 씻고 세계 어디서나 한국인임을 자랑하며 떳떳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동아일보 1988/05/03). ‘국가적 망신’을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로 강조하는 방식은 다음 날 경향신문에 실린 “어른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이어진다.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자녀 동반 자살의 문제와 함께 ‘학대와 버림’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 사설은 “지금도 분명 기아와 민생고를 한탄하던 1950년대의 암울했던 서울도 아니”라며, “대미 수출이 한 해 200억 달러나 되는 수출 왕국이 ‘유아’ 수출 왕국까지 겸하려는가”는 비판적 논조를 전개한다(경향신문 1988/05/04). 천도교 ‘신인간’사 주간 김응조는 “어린이가 상품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며 “설사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랑할 일은 못 될 것”이라 평한다. 이어 “과거 6·25 동란과 같은 혼란기라면 몰라도 우리 상품이 세계를 누비고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선진 대열에 들어선 우리”가 아니냐며, “선진화와 윤리의식이 반비례”하는 현상을 꼬집고는, “우리 성인들 스스로가 먼저 의식구조를 바꾸고 말보다 실천하는 자세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동아일보 1988/05/07). 며칠 뒤 동아일보의 “어린이 입양 국

외 송출 늘고 국내선 소극적” 기사는 “한국인이 제 나라 어린이들조차 기르지 못하고 아기 낳기 싫은 서양 사람들의 육아 본능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린이들을 꾸준히 방출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국제적 비난’은 이제 이 망신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으로써 올림픽 기간(9월 17일~10월 2일) 전후인 1988년 8월 1일~10월 30일 동안 국외 입양을 허가하지 않는 것, 입양기관에 행사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 국내 입양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동아일보 1988/05/12; 신필식 2020, 391).

이 기사들을 통해 해외 입양은 ‘오명’, ‘불명예’, ‘망신’, ‘가난의 상징’, ‘국가적 수치’, ‘치부’, ‘부끄러움’으로 축약된다. 당시 한국에서 ‘미혼모’가 맞닥뜨리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과거 정부가 ‘혼혈인’의 배제를 목적으로 조직적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사실, ‘상품’으로 ‘수출’한 과정에서 이득을 취한 곳이 어디인지 등은 더 이상 다뤄지지 않는다. 경제성장을 통해 ‘올림픽 개최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상이 노출된 데에서 비롯된 수치심만이 그 자리를 메울 뿐이었다.

수치심의 강조는 입양 산업이 가진 문제들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수치심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선의를 가진 이상적인 주체임을 보여주는” 과정에 가까웠다. “수치스러움을 공식적으로 만들 용기만 있다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의 이상적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우리’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주장하게 해주는 과정이 된 것이다(최은주 2017, 80-81, 86). ‘국가적 수치’를 강조하는 방식이 오히려 국가가 이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하게 만드는 사이, ‘한국

인’, ‘우리’, ‘어른’에게는 책임 있는 출산, 올바른 성교육, 실천하는 자세 등을 행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한국은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내며 ‘선진 대열’에 오른 ‘수출 왕국’이자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 2) 국내 입양 홍보를 통해 굴절된 ‘수치’의 방향

수치심을 언급하는 것과 다른 해결책이 등장하며,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것은 올림픽이 폐회한 뒤, 국정감사가 진행된 1988년 10월경이 되어서였다. “우리의 아기들을 우리가 기르고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고 밝힌 ‘사람 사는 정을 심는 모임<sup>10)</sup>’이 설립된 것이다. 이 단체는 “올해 초 미국의 뉴욕타임스, 프로그레시브 등이 다투어 ‘한국 고아 수출 1위’라고 비꼬아 해외 입양 문제가 국내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며, “아기 수출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씻고 우리의 아기들을 우리가 기르고 미혼모가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한겨레 1988/10/0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국내 입양 알선 사업 허가 신청 소식을 다룬 기사에서는 “고아 수출 세계 제1위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벗기 위해 국내 입양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전해진다(한겨레 1988/11/16). 그밖에

10) 시인 신경림, 아동문학가 이오덕, 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등 뜻을 같이하는 50여 명이 주축이 되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10여개 나라에 있는 ‘인간의 대지’라는 단체의 협력을 통해 이 모임을 결성했다고 한다(한겨레 1988/10/02).



도 가톨릭계는 ‘한마음 한 몸’ 운동의 전개를 선포하며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기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양-결연 운동을 전개하고 대대적인 국내 입양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 천명한다(한겨레 1988/10/18).

이런 흐름 속에서 국정감사에 제출된 보사부의 자료들을 토대로 시기별 해외 입양 건수와 국내 입양 건수 등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통계자료가 소개되기도 했지만,<sup>11)</sup> 관련 기사들 초점은 결국 이미 같은 해 초를 기점으로 과거가 된 제5공화국의 비리와 입양 전담기관 홀트의 낙하산 인사에 맞춰져 있었다(한겨레 1988/10/11; 1988/10/19). 그리고 해외 입양은 “인구 선진” 사회의 과제, “가족 해체” 전반을 다룬 기사의 한 예시가 되거나(한겨레 1988/09/13; 동아일보 1988/11/17), 이 시기 최초로 국내에서 성공했으나 “생명윤리의 붕괴, 우생학적 문제, 대리모 출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평가된 “시험관 아기”를 대신할 선택지로 제시되었다(한겨레 1988/11/10).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표현은 수치심을 수반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동시에 ‘곧 벗어날’ 혹은 ‘벗어난’ 과거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해외 입양을

---

11) 이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1958년부터 1987년까지 10만 9,759명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만 5,849명이 제5공화국 때 보내진 것으로 밝혀졌다. 1984~1987 해외 입양 3만 3,088건을 토대로 입양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사생아가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시설수용 아동 15.7%, 심신장애아 14%, 결혼가정 아동 8.3%를 차지했다. 1970년 이후 1988년 6월 말까지 전국에서 버려진 아기는 모두 17만 1,439명이며, 1970년 5,788명, 1975년 7,238명, 1980년 8,500명, 1985년 1만 4,230명으로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80~1987년 국내 입양된 수는 2만 4,317명으로 같은 기간 해외에 입양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겨레 1988/10/11).

만들어온 것이 경제성장 이전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문제는 국내 입양이라는 대안을 통해 이제는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국제 입양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과연 ‘국내 입양’이라는 해결책만으로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인가?

휘비네트는 1980년대 해외 입양을 만들어낸 요소들에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우선, 전두환 정권은 “서구 동맹 국가들과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비정부 간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의 운곽을 잡고, 4개 입양 기관의 무한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입양만을 위한 산부인과, 아동일시보호소, 위탁가정 그리고 미혼모 시설이 설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임산부 시설에 들어오는 대다수가 10대에서 25세 미만의 여성들이며, 혼전 성관계가 낙인이 되어 사회적 지위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중산층 출신”이었다. 해외 입양이 “입양기관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자 “국가에게는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출구”였으며, “한국 사회의 강고한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순결하지 않고 매각 가능한 자원을 유출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이다(휘비네트 외 2012, 276-278). 그렇기에 국내 입양이 당시의 해외 입양 과정에 내포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배태순의 “한국 입양 부모들의 입양 태도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는 기사는 국내 입양 저조의 원인이 경제적 이유라기보다 강한 혈족 의식, 친자 개념 등의 문화적 전통에 있음을 짚어낸다. 자녀 입양 의사가 있는 양부와 양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남편이 장남일수록, 그리고 남편 쪽 가정에 남자 조카가 있는 경우 입양에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양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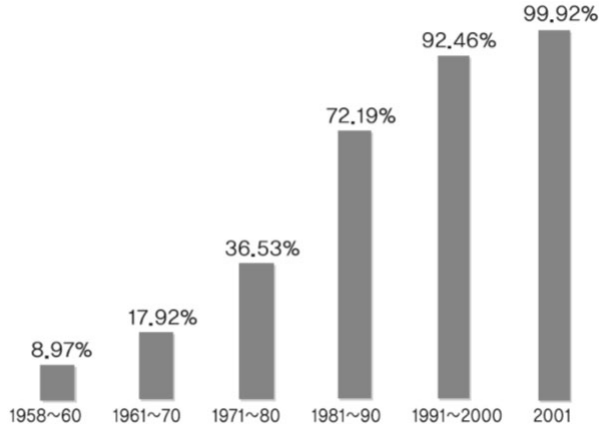
“시댁에서 입양 사실을 아는지”가 중요한 입양 결정 요소였으며, 양부의 경우 기독교인이고, 나이가 40세 이상일 경우 입양에 호의적이었다. 또한 “국내 입양 아동들은 평균 연령 1개월 정도의 신체 건강한 신생아들이 대부분”이며, “6개월 이상이거나 신체에 사소한 장애라도 있으면 국내 입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힌다(동아일보 1988/05/12). 이는 국내 입양이대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시가의 승인’을 거쳐 ‘비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sup>12)</sup> 문제의 원인이 이른바 ‘정상 가족’의 형태를 벗어난 가족에 낙인을 찍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1989년 초, ‘작년에 논란이 있었다’는 회상의 방식으로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마치 과거의 논란 혹은 소동인 것처럼 다시 서술하는 기사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존의 입양 원인을 지적하는 논조가 재차 축소되며 그 방향 역시 변화한다. “미혼모에 의한 기아는 성도덕의 타락화 추세와 맞물려” 있으므로(경향신문 1989/01/30), “정부는 미혼모나 부모들이 아기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을 시

---

12) 이 시기 ‘여아 입양과 관련한 기사들은 ‘대잇기’라는 기존의 목적보다 ‘쓸쓸함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여아를 입양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중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동아일보 1984/02/09; 동아일보 1987/08/28). 그러나 여기서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설명보다, 이것이 이 시기 기사화될 소재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참고로 몇 년 뒤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양 여아의 수가 남아보다 10%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동아일보 1994/06/13). 그리고 2003년 홀트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홀트를 통해 진행된 국내 입양 여아의 수는 346명으로 남아 175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홀트아동복지회 2004, 35).

〈그림 1〉 해외 입양 중 미혼모 자녀 비율



자료: 이미정 외 2009, 72.

급히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진다(한겨레 1989/02/16). 한 독일 유학생의 오피니언에 불과하긴 하지만,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이 시간에 ‘아기를 파는 나라’라는 소리는 한국이 듣지 않아야” 하니, “아기를 버리는 미혼모들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소개된다(동아일보 1989/04/04). 입양 기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미혼모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이 개인, 특히 미혼모의 ‘성도덕’ 및 ‘양육 책임’으로 강화되기 시작한다. 특정한 자격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아이만이 제한적으로 국내에 입양되는 상황,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저임금 생산직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탁아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박주현 1990), 미혼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과 함께 낙인이 강화되자 해외 입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그림 1〉 참고).

### 3) 유예된 흔적들: 영웅이 된 ‘한국계’가 전하는 용서

그렇다면 국내 입양과 미혼모 책임 강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긴 흔적들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많은 입양 연구들은 성장한 입양인을 여전히 아이로 묘사하는 방식들이 입양인들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한다.<sup>13)</sup> 이 명명이 발휘한 또 다른 효과는 입양이 이미 흘러간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시간적 장치이자, ‘한국계’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에도 있었다. ‘국가적 수치’ 논란이 진행되던 시기 기사에서 등장한 입양인에 대한 서술 방식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출신 해외 입양아 중 처음으로 모국 유학길에 나선 뿔러수정 양”과의 인터뷰를 다룬 이 기사는 “통상 어머니와 조국과 양부모로부터 세 번 버림받는다”는 해외 입양아의 부정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극복한 첫 번째 케이스”로 그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인문계 고등학교인 김나지움을 졸업한 그가 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에 입학하여 3개월 과정의 ‘뿌리 찾기’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비록 제가 이곳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 독일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 내용이 인용된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아니냐고 묻기도, 놀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인이라고 대답”했다는 발언과 함께 “밝은 표정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기사 말미의 서술을 통해 ‘위

---

13) 유지영·Wagner 2013, 50-51.

기 극복'의 서사가 그려진다(동아일보 1988/08/17). 성인이 된 입양인들을 “행복하게 자란 어린이”라는 수사로 서술하는 이 ‘위기 극복’ 서사는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84/02/13; 1984/05/18).

이 ‘위기 극복’ 서사는 ‘뿌리’로 상징된 ‘한국’, ‘한국인’ 범주의 강조로 연결된다. 미국과 유럽의 장성한 ‘입양 고아’들을 언급하는 한 기사는 “모국에 대한 긍지를 갖는 ‘한국인 2세’로 키워나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나를 버린 나라’로 한국을 인식하게 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주장한다. “이제부터라도 모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알려 한국인이라는 뿌리 의식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말 역시 인용된다(조선일보 1988/06/08).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인간으로 성장한 입양인의 서사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구문이 반복된다는 것과 ‘나를 버린 나라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된다는 것이었다.

‘잘 성장한 어른’의 ‘원망하지 않는다’는 서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한국의 외부에서 성장한 인물들 역시 태생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존재였던 것으로 그려내는 방식을 통해 ‘한국인’의 우수함, 긍정적 ‘국민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한 입양인들이 개인적 영향력이든, ‘부끄러운’ 과거의 상징으로서든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감정을 화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Stoler 1989, 647-648; 오혜민 2019, 39). 성장한 입양인의 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서’로 반복해서 발화되는 이 방식은 문제들을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으로, 문제해결의 책임을 입양인 개인이 극복

해야 할 노력의 몫으로 돌렸다(Chanfrault-Duchet 1991, 79; 버퀴스트 외 2015, 170-171).

#### 4. 세계화 전략과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우수한 한국인’으로 성장하여 ‘모국’에 귀환하는 이 서사는 몇 년 뒤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성공적’으로 성장한 입양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본 장에서는 19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국가적 망신’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결되었던 시기에서 시간을 빠르게 넘겨 ‘세계화’라는 모토와 함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을 통해 해외 입양인들을 ‘한민족’의 범주 안으로 포섭하고자 한 움직임을 보인 1990년대 말의 시기에 주목한다.<sup>14)</sup> 해외 입양인 서사 중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성덕 바우만’ 이야기를 사례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

14) 세계화라는 개념이 1990년대 중반 폭발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1992년 32건, 1993년 126건에 불과했던 관련 기사의 수가 1994년 1311건으로 급증했으며, 연초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의 6대 과제를 제시한 해인 1995년 279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중앙지 검색기준). 같은 해, 김영삼 정부가 OECD 가입 신청서를 제출, 연말 최종 가입이 결정되었다는 것, 이 시기 이른바 각자의 견해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전략들을 다룬 서적 역시 상당수 출간되었으며, ‘한민족의 개념이 강화되었다는 사실들을 유의미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송병락 1995; 이한구 1994; 경향신문 1995/07/09).

## 1) '유전자'에 새겨진 뿌리 찾기로서의 '성덕 바우만' 이야기

1996년 1월 28일 저녁, KBS의 <일요스페셜> “성덕 바우만 누가 그를 살릴 것인가” 편은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이하 성덕 바우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의 사연을 소개한다. 1977년, 네 살 때 미국에 입양되어 성장했으며, 현재 미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그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만성골수백혈병 진단을 받아 1년 이내에 골수(조혈모세포)를 이식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연이 소개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병으로 인한 급격한 체력 저하에도 학교를 떠나면 학교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주변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골수 이식 수술이며, 혈육 간 이식 수술의 성공 확률이 가장 높다는 설명과 함께 19년 전 헤어진 한국의 친부모와 가족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 소개된다. 프로그램의 중반부, 입양기관의 협조로 이전 서류들을 추적해 나가며 힘겹게 친부모를 수소문하던 담당자는 비혈연 간 골수 이식 수술 성공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다. 성덕 바우만의 골수 유전자 정보가 한국으로 전송되어 기존 한국인 기증 후보들과의 일치도 검사가 진행된다. 등록된 골수 정보 중 1차 검사를 통과한 골수는 단 한 건, 그러나 이 역시 2차 검사에서 여섯 가지 유전인자 중 하나가 어긋난다는 결과를 통보받는다. 방송은 이것이 또 다른 그리고 더 많은 기증 신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골수 은행 등록을 홍보하고 마무리된다(KBS 1996/01/28; 바우만 1997).

1년 후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두고 ‘생존 확률’을 확보하기 위해 분



투하는 내용을 담은 이 서사에는 친부모 찾기,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골수 찾기 이 두 가지 목표를 찾아가는 간절함이 담긴다. 이 강화된 열망 속에서 두 방법 중에서도 한층 더 특정된 대상이 지목된다. 친부모 찾기의 과정이 친모에, 일치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골수 찾기의 과정이 한국인의 골수에 집중된 것이다.

우선, 어머니가 지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방송 초반부, 성공률이 가장 높은 친족, 혈육 간 골수 이식이 성덕 바우만을 살릴 수 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입양된 가족들이 만든 호소문이 등장한다. “19년 전 네 살배기 아이였던 한국명 김성덕의 친부모를 찾는다는 간곡한 호소문을 만들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the Bauman Family’라는 글자가 담긴 이 호소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뒤 나직한 어투의 나레이션이 이어진다. “어머니 당신만이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sup>15)</sup> 입양 전 흔적을 찾아 나선 미네소타 아동복지회의 담당자는 동방아동복지회에 연도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 책장에서 성덕 바우만의 기록을 찾아낸다. 그리고 이 기록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양부모나 성덕이 본인 자신이 자기 어머니나 할머니가 자기를 3년이나 기르다 내놔기 때문에 기르려고 애쓰다가 안 되어서 양자를 보냈다”고 생각한다며, “어머니나 외할머니가 살았다면 분명히 와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전달한다.<sup>16)</sup> 바로 이어지는 클로즈업 장면에는 생년월일과

15) 나레이션으로 전달된 대사(KBS 1996/01/28, 11'46"~11'54").

16) KBS 1996/01/28, 13'07"~13'37". 이 내용의 근거는 이후 등장하는 양부 스티브 바우만의

출신 지역, 중졸이라는 학력, 결혼하지 않은 커플, 금수라는 이름에 이르  
기까지 빨간 펜으로 강조된 생모의 개인 정보들이 여과 없이 공개된다.  
그러나 나레이션은 “기록이 기대 이하로 영성하다는 것이 문제다. 생모  
의 이름과 나이가 전부였다. 더구나 그녀는 미혼모며, 새로운 결혼생활을  
위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겼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하며, 화면에는 ‘새  
로 결혼하기 위해 아이를 양자로 보냄’이라는 자막 역시 등장한다. 첫 방  
송 중 생모를 찾는 일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나 방송의 마지막 부분 성  
덕 바우만은 “생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우선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이제껏 제가 이뤄놓은 모든 성과들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분  
도 그 후로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골수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계속 …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한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점  
점 줌인하며 들어가 눈가가 벌게진 성덕 바우만의 모습을 담는 것으로 생  
모에 대한 간절함을 다시 강조한다(KBS 1996/01/28, 50'16"~50'26").

친부에 대한 정보는 방송에서 등장하지 않았다. 양부 스티브 바우만이  
“생모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버지  
는 농부, 농사철이 아닐 때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다가 어머니와 만났”으

인터뷰를 통해서도 전달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 해 출간된 도서에도 비슷하게 담긴다. 방  
송 이후의 제보를 통해 정보를 얻어내고, 경찰에 신원과 소재를 확인받은 스테프가 친모  
를 찾아가 사연을 듣고 전달해 준다. “혼외 상태에서 브라이언과 동생을 가졌지만, 아버  
지가 떠나자 혼자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었”고 “다 같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아” “입양을  
결정”했다는 사연이었다(바우만 1997, 86-90).

며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줬다”는 생모와의 일화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만 등장할 뿐이었다(KBS 1996/01/28, 19'18"~20'53"). 1년 후 후속 방송에서 이복 누나가 출연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았다.<sup>17)</sup> 원망도 용서도 가능한 대상으로는 오로지 친모만 강조될 뿐이었다. 이후 친모 찾기를 위한 분투는 눈 쌓인 길을 달리는 차의 모습에 깔리는 나레이션 “나타나지 않는 한 명의 어머니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기증자를 찾는 편이 빠를 수도 있는 것이다”과 함께 비혈연 간 기증자 찾기로 전환되었다(KBS 1996/01/28, 41'09"~41'15").

‘한국인의 골수’에 집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비혈연 간’ 골수 이식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과정에서 “백인의 경우 20만 명 내지는 30만 명에 한 명꼴로 찾을 확률이 있지만,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유전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찾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는 의사의 인터뷰가 소개된다.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끼리, 또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끼리 찾아야만 찾을 확률”이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사람들보다는 10배 정도로 찾기 쉬운 2만 명에 한 명꼴로” 가능성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sup>18)</sup> 낮은 확률이 제시되자 골수 공여자 후보는 한국인으로 축소된다. 방송 이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골수 기증 운동을 유도하는 기사 역시 “단

---

17) 유전자형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식을 위해 이복 누나가 미국을 찾는다. 공항에서 만나 오열하는 장면과 이후 이식 성공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담길 뿐, 그 내막이나 사연들은 등장하지 않아 아버지 쪽의 이복누나였다는 것과 아버지의 사망 소식 등은 책에서만 확인 가능했다(KBS 1997/02/02, 16'07"~16'38"; 바우만 1997, 93-114).

18)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소속(KBS 1996/01/28, 46'01"~46'39").

일민족인 우리의 경우 유전자가 2만여 종에 불과해 6만 명만 골수를 기증해도 대다수 환자가 완치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 견해에 힘을 신는다(경향신문 1996/02/05).

## 2) 우수하고 강력한 ‘한국’의 유전자

성덕 바우만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언급된 전형적인 모범 ‘한국계’의 속성 묘사와 또다시 닮아 있다(동아일보 1988/08/17). 그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그처럼 뛰어난 학생은 일찍이 없었다”고 말한다. “30년 동안 상담했던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나”며, “삶의 목표도 일찍 설정하며 미래를 가꿔나갔다”는 것이다. 성적표와 메달 클로즈업 화면에는 “성적은 올 A, 스페인어 한 과목만 딱 한 번 B 학점을 받았다. 음악이나 스포츠 등에 특히 만능이었다. 교내 레슬링 코치로 활약한 적도 있었다”는 나레이션이 깔린다. 지역 신문 클로즈업과 함께 “그가 학생회장이 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오로지 브라이언을 위해 시 교육위원회에 학생 대표 자리가 최초로 마련되기도 했다”는 설명도 이어진다. 방송은 이어 이런 그를 “어느새 1등 미국 시민이 되어 있었다”고 평한다(KBS 1996/01/28, 18’05”~18’58”). 모범적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이 서사는 설 틈 없이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와 연결된다. South Korea라는 손 글씨 라벨이 붙은 폴더가 화면에 등장하며 태극기, 지도, 인구수, 연대표 등을 스크랩해 놓은 내용을 보여준다. 다시 “그러나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은 한국,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는 나레이

선이 보이소버된다(KBS 1996/01/28, 18'59"~19'17"). 방송 후반부에는 오랜 만에 다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제작진이 성덕 바우만의 기숙사를 찾아간다. 이른 아침, 군복을 입고 무언가를 읽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비추며 “당연히 자고 있을 줄 알았던 그가 열중해 있는 것은 기말시험 공부” 중이란 설명과 함께 “미국인 부모가 키운, 그러나 한국 피를 속이지 못하는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그의 별명은 김치다”라는 나레이션도 이어진다. 기숙사에서 김치 먹다가 생긴 에피소드를 풀어놓는 성덕 바우만의 인터뷰와 함께 책상 밑에 붙어 있는 Brian “Kim Chi” Bauman 포스트잇 메모가 클로즈업된다. 해설자는 “브라이언 김치 바우만, 그가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뿌리”라고 서술한다(KBS 1996/01/28, 48'18"~51'14").

### 3) ‘선진국’의 어머니와 ‘문화적 차이’

이 방송 프로그램은 아픈 아들을 보는 양부모의 감정선을 계속해서 따라간다. 특히 양어머니 일레인은 양아버지 스티브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과 달리 대사보다 동작과 표정으로 많은 감정을 전달한다. 해설은 나레이터와 배경음악의 몫이었다. 일레인의 첫 등장, 나레이션으로 “누구보다 그걸(친부모의 연락) 간절히 바라는 이가 양어머니 일레인일 것이다. 지난 두 달간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상심해 있었다”는 내용이 설명된다(KBS 1996/01/28, 15'58"~16'09"). ‘친모 찾기’가 난관에 부딪혔다는 얘기 뒤에 성덕 바우만이 재학 중인 공군사관학교를 찾아간 양부모의 시퀀스가 전개된다. 어두운 기내에 앉아 있는 일레인의 모습이 등장하자 “고

소공포증이 심해서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1000킬로미터가 넘는 먼 길을 매번 자동차로 갔었다”는 설명이 따라온다(KBS 1996/01/28, 21'10"~21'28"). 학교에 도착, 성가대 연습에 나타나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양부모의 모습에 많은 비중이 할애된다. 일레인의 혼미한 얼굴과 초조한 양부 스티브의 표정에 성가대의 노래도 겹쳐진다. 카메라는 일레인의 굳은 표정을 계속해서 잡으며 “사관학교 제복을 입은 아들은 늘 어머니 일레인의 자랑거리였다. 배 아파 나온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그녀는 막내 브라이언을 유독 사랑했다”는 설명이 따라온다. 이 시퀀스는 뒤늦게 등장한 성덕 바우만과의 재회와 눈물을 터뜨리는 일레인의 모습으로 일단 마무리된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아침 바람에 나부끼는 성조기와 평화로운 잔디밭을 보여주며 ‘공군사관학교 묘지’라는 자막이 뜬다. “공군사관학교 교정 한 구석에는 묘역이 있다. 재학 중 사망한 생도들의 무덤이다”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겹쳐지는 조수석에 앉아 잠든 듯한 일레인의 뒷모습은 이 비극을 강화한다. “그 곁을 지나 미네소타로 돌아가면서 부모는 그만 할 말을 잇는다”는 서술이 이어진 뒤 화면이 암전된다(KBS 1996/01/28, 26'18"~29'48"; 32'52"~33'30").

양어머니를 통해 강조된 비극 서사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친모를 대비시키며 부각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성덕 바우만의 누나 베키는 인터뷰를 통해 그를 “한국인 동생이 아니라 영원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친해지기 위해 모두 다 한 방에서 그것도 바닥에서 잤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한다. 그런 베키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당시에 미혼모였고, 바로 그 이유로 아이를 위해 스스로를 위해 아

이를 입양기관에 보낸 것인데 어쩌면 지금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일로 과거가 공개되면 그녀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이를 어찌 생각하느냐에 대한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는 대목이었다(KBS 1996/01/28, 35'14"~35'41").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누가 대신 대답해 줄래요? (한참 동안 아래를 보다가 고개를 들고) 제가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는 그녀가 제발 도와줬으면 해요. 우리 문화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야겠죠. 만약 그녀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제가 그녀를 이해해줘야겠죠 (KBS 1996/01/28, 35'42"~36'38").

‘문화적 차이’라는 비교의 언어가 인터뷰 형태로 전달된다. 이는 등장하지 않는 어머니를 옹호하는 근거로 보이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비난과 비동의, 간절함 등의 복잡한 감정이 드러난다. 해당 방송에서 친모는 과거와 서류에만 남아 있는 추구의 대상으로만 그려질 뿐 직접 등장하지 못하며, 그 이유는 현재의 ‘정상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간절함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서술로 채워진다. ‘미혼모’로서 친모가 과거 직면해야 했던 고뇌, 현재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 등 친모의 입장에서 역설 설명되었어야 할 복잡한 맥락은 ‘문화적 차이’를 가진 친모의 행위로 단순하게 서술되며 탈정치화된다. 그리고 감정이 덧입혀진 문화적 차이로서의 설명 방식은 후속 보도에서도 또 다시 관찰된다.

#### 4) '선진화'된 '모국'이 제안하는 '화해'

첫 방송이 송출된 일주일 후, 한국 육군 병장 서한국의 유전자 조직과 성덕 바우만의 조직이 일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한겨레 1996/02/04; 경향신문 1996/02/04). 같은 해 한 신문사는 타임지가 “한국인들이 보여준 열의가 혈육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서술했음을 전달하며, 연말에는 성덕 바우만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 “성덕 바우만 군의 ‘부활’을 온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며 “뜨거운 동포애”로 명명한다(한국일보 1996/07/11; 1996/12/26). 이듬해 투병 생활과 기증자 서한국의 모습, 사회적 과장 등을 조망하는 KBS는 후속 방송을 통해 성덕 바우만을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 추대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다룬 한 기사는 이 추대 과정에서 “바우만이라는 영웅 만들기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실리 추구적 태도와 입양아에 대한 죄책감이 바우만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표출된 한국의 태도”가 대비된다는 비교의 서술까지도 진행된다(KBS 1997/02/02; 동아일보 1997/01/31; 한겨레 1997/02/01).<sup>19)</sup>

19) 1997년 2월 2일 방영분 “성덕바우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에서 이 견해가 반영된 내용은 ‘미네소타 WCCO TV뉴스(1996/10/27)’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에서였다. 성덕 바우만의 퇴원을 앞두고 가족들이 면역력이 약한 브라이언을 맞이하기 위해 가구를 바꾸고, 천장을 뜯고, 벽을 소독하는 등 대대적인 청소에 돌입한 모습을 비추는 장면에서 KBS 제작진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사회에서 바우만가의 가족에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나레이션에 덧붙인다. 대청소와 공항에서의 귀환 환영 세레모니가 등장한 뒤 화면에는 미 골수은행 전화번호가 등장한다. 이 뉴스의 나레이션은 “(KBS 더빙) 브라이언의 가족들은 기증자가 나타난 것을 매우 행운으로 여기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 특히 소수민족들이 골수 기증을 청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수은행으로 전화하십시오”였다. 그러





성덕 바우만 - 서한국씨 감동의 재회

## ‘골수 의형제’ 어깨동무

〈사진 1〉 ‘골수 의형제’

자료: 경향신문 1998/07/20

후속편이 방송된 이듬해인 1998년 7월, 성덕 바우만의 한국 방문 관련 기사에서 역시 이 방식은 계속 등장한다. 한국에 방문한 성덕 바우만은 골수기증자인 서한국을 만난다. “눈물로 재회”했으며, 기증자 서 씨의 “어머니와 포옹”하고, “아버지의 묘소를 참배”했다는 기사는 급기야 이 둘을 피를 나눈 “골수 의형제”로 명명한다(경향신문 1998/07/20). 골수는 어느덧 ‘혈연’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으며, 이들은 ‘가족’의 형태로 설명되었다. 그렇다고 이런 상상력의 발휘가 기존 정상 가족 담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토록 간절하게 설파되었음에도 정작 2년 뒤인 1998년 실제로 이루어

---

나 이를 ‘실리 추구’라며 비교 대상으로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KBS 방송 역시 아래에 한국의 골수 기증 신청 전화번호를 더 큰 글씨 자막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KBS 1997/02/02, 50'30"~54'46").

진 친모 상봉을 다룬 기사는 많지 않았다. “어머니를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연락하며 살자”는 성덕 바우만의 말과, “생모 신 씨도 바우만 씨를 부둥켜안고 모정을 저버린 데 대해 용서를 빌었고, 투병 생활 등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미리 준비한 불고기와 김치를 직접 먹여주기도 했다”는 내용과 함께 과거의 일이 알려졌을 때 친모의 현 가족에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끝내 모정을 참지 못해 모습을 드러냈다”는 서술이 전개된다(동아일보 1998/07/21; 1998/07/22; 조선일보 1998/07/21). 과거의 입양 원인과 당시 그리고 현재 생모가 겪는 어려움을 만들어낸 배경 등은 생모 본인이 입양인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할 사연, 이제는 현재를 위해 묻어야 할 과거의 일로만 해석된다. 생모의 서술이 메워야 할 자리는 이미 한 한국인의 골수 기증이 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자부심과 안도감 속에서 ‘사랑’, ‘희망’, ‘친교’, ‘사과’, ‘화해’, ‘용서’ 등 빼곡하게 발휘된 정동으로 메워졌다.<sup>20)</sup>

해외 입양인에게 ‘사과’하며 ‘화해’하는 이 방식은 같은 해 처음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진행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해외 입양아 출신 동포들을 만나 이들을 해외로 내보낸 데 대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사과”한 것이다. “8개국의 성공한 해외 입양 동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8년도의 일화도 소개된다. “자신이 88년 스웨덴에서 ‘왜 우리를 팔

20) 온정적 이미지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식을 제안하는 방식은 당시 국내 입양을 “선진화된 문화”이자 ‘사랑의 실천’으로 설파하는 동시에 미혼모를 여전한 ‘사회문제’이자 예방되어야 할 것으로만 다뤘던 당시의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권희정 2019, 222-224).

아 먹었느냐고 묻는 한 여학생을 만나 정치지도자로서 사퇴한 뒤 운명에 굴복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조언을 했던 이야기”를 전하며 당시 그 여학생이었던 김리나를 직접 소개한다. 김씨가 “울음을 삼키며 ‘그때 김 대통령과의 만남이 나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된다(한겨레 1998/10/24). 모범적으로 ‘성장한’ 입양인들을 등장시켜, 훈훈한 일화들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화해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방식에는 “과거에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버려진 아이들을 포용하고, ‘지지’하고, ‘편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설파하려는 의도가 전달된다(버퀴스트 외 2015, 169-170). 국제 입양의 대안으로 국내 입양을 제시했던 1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유기와 입양의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의 손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sup>21)</sup>

‘무엇이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실종된 채로 ‘한국’의 이미지 유지로 귀결되는 입양 논의가 계속해서 전개되었던 이 시기, 언론에 ‘IMF 낙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다. ‘IMF 시대’ 실업 등에서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피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낙태를 선택하는 주부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다(경향신문 1998/02/21; 1998/03/09; 동아일보 1998/06/09). “앞만 보고 달려왔던 코리아가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설명한 한 기사는 “10년 전 국민소득 6000~7000달러 시대에도 희

21) 정서적 욕구 충족을 고려한 비입양 아동 위탁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른바 ‘미혼모성’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은 2010년을 전후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버퀴스트 외 2015, 284-285; 권희정 2015, 62).

망을 갖고 살았다”면서 “자살과 낙태와 같은 반인륜적인 일탈”의 증가를 우려한다(경향신문 1998/03/09). 그동안 이해받을 수 있었던 ‘가난했던 과거’의 일로 설명되었던 양육 포기과 임신 중지는 다시 경제적 위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며 위기의식을 강화하는 사례로, 개인의 도덕과 결부된 성질의 일탈로 설명된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해외 입양이 논란으로 등장했음에도, 국내 입양과 ‘미혼모’와 입양인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온 국가가 마련해 둔 대응책은 없었다. 1999년 5월의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87년부터 해외 입양을 매년 3% 정도 줄여왔으나 지난해 경제난으로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워낙 많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해외 입양 제한 조치를 유보해 해외 입양이 다시 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는 “기아와 사생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IMF 사태로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난 데다 낙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 역시 제시한다(동아일보 1999/05/05). ‘국가’의 경제적 지위 약화라는 상황은,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것으로 제시했던 과거의 문제해결 방식을 급속하게 전환한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언제든 양육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로 서술되며, ‘보편적 인권’이 존중되는 ‘선진국’의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성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비슷한 서술은 이후에도 쉽게 발견된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독재 시기,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 등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런 과거에는 어린이의 권리가 어른의 권리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없다

고 여겨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으로 신음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경제적·민주적 상황의 진전과 함께 한국에 보내는 세계의 기대는 점차 커지고 있다. 자비롭고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어른이건 어린이건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다(한겨레21 2009/05/15).

## 5. 맺으며

해외 입양을 최초로 문제시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1위 고아 수출국’ 타이틀과 해외 입양이 이루어졌던 과거와의 화해를 위해 등장한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이야기는 ‘국가 이미지’ 관리라는 목적하에 회피, 굴절되며 특정 집단에 책임을 전가해 왔던 방식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1988년,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타이틀로 강조된 ‘국가적 수치’는 이 수치를 현재의 ‘국가’와는 동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묘사하는 과정을 거치며,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일부의 문제를 제외하고 일부의 문제만을 강조하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공론화되어 해소된다. ‘기아 발생’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미혼모’ 집단에 있는 것으로 전가되며, ‘국가적 망신’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등장한 국내 입양 캠페인은 ‘국민’의 참여만을 독려한다. ‘해외 입양인’의 ‘위기 극복 성장’ 서사와 함께 등장하는 ‘이해’와 ‘용서’ 서사 역시 칭송의 형태를 통해 문제 해결의 책임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각 개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리고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우수한 한민족’, ‘온정적 한민족’이라는 집단의 이미지가 덧입혀

진다.

10여 년 후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 이야기는 ‘세계화’와 ‘선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던 시기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양육 책임을 진 ‘친모’ 찾기에 생명 연장을 위한 끝수 찾기라는 간절함이 더해진 이 서사는 결국 ‘한국인 유전자’의 우수함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었다. 우수하게 성장한 모범 ‘한국계’로 성덕 바우만을 묘사하는 동시에 ‘온 국민’이 성덕 바우만을 구하고자 실리 추구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동포애’를 발휘하고 있다는 서사 역시 완성되었다. 이에 힘입어 ‘한민족’의 범위에 ‘해외 입양인’을 빠르게 편입시키기 시작한 이 시기, ‘용서’를 구했던 과거의 방식은 이제 상호 간의 이해관계와 친교가 덧붙여진 ‘화해’로 그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나 이 화해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한 것은 10여 년 전 외신 보도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국가 이미지’에 가까웠다. 오랫동안 문제를 강조해 왔음에도, ‘IMF 시대’로 불리는 경제 위기의 상황이 닥치자, 기아의 발생을 막는 ‘낙태’는 필수불가결한 슬픈 선택으로 서술되었다. 그리고 그럼에도 발생한 기아는 이미 준비되었어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틀 대신 일시적 해외 입양 제한조치 유보를 통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 국가의 책임 범위 밖으로 또다시 빠르게 분리되었다.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각 구성원의 노력과 책임, ‘따뜻한’ 연대를 강조하고 칭송하며 ‘1위 고아 수출국’과의 화해를 시도했던 ‘임시 선진국’의 방식은 존재해 온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각자의 개별적 노력으로 문제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착시효과를 강화시키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임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끊임없이 제시, ‘누구의 권리가 우선되는가’를 경합하게 만드는 논의만을 반복해서 호출하며 각 구성원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다~~

## 참고문헌

- 권지성·안재진. 2010.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1(4). 269-292.
- 권희정. 2015.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1). 51-98.
- \_\_\_\_\_. 2019.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들의 역사』. 서울: 안토니아스.
- 김재민. 2013.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해외 입양인.” 『민주주의와 인권』 13(1) 237-272.
- \_\_\_\_\_.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25. 282-318.
- 바우만, 브라이언 성덕. 1997. 『내 이름은 브라이언 성덕 바우만입니다: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 제삼기획 역. 서울: 제삼기획.
- 박선주 외. 2014. 『고아, 족보 없는 자』. 서울: 책과함께.
- 박순호. 1998. “한국 입양아의 미국내 입양의 사회·제도적 환경: 한·미 양국 간의 입양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리학논구』 18. 76-92.
- \_\_\_\_\_. 2007. “한국입양아의 유럽 내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6). 695-711.
- 박주현. 1990. “타아문제의 현실과 대책.” 『한국여성학』 6. 157-189.
- 버퀴스트, 캐슬린 지숙 외. 2015. 『한국 해외 입양: 초국가적 이동 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 서사 50년』. 서울: 뿌리의 집.
- 베리어, 낸시 뉴턴. 2013. 『원초적 상처: 입양가족의 성장을 위한 카운슬링』. 뿌리의 집 역. 서울: 뿌리의 집.
- 송병락. 1995. 『세계로, 초일류 선진국으로: 경제석학 송 교수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지구촌 경제 이야기』. 서울: 중앙일보사.

- 신필식. 2020.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현호. 2010. “낙태죄에 관한 제문제.” 『저스티스』 121. 370-413.
- 양현아. 2018.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21(1). 213-240.
- 오세웅. 2010. “트랜스내셔널 한국 입양 내러티브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비교한국학』 18(1). 63-90.
- 오혜민. 2019. “어글리 코리아의 마주침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 『기억과전망』 40. 9-58.
- 유지영·Wagner, Keith. 2013. “소수자로서의 해외입양인: 영화 〈국가대표〉의 해외입양인 재현을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2. 49-76.
- 유혜량·임채완. 2016.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 “뿌리찾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9. 149-169.
- 윤주희. 2007. 『다녀왔습니다』. 과주: 북하우스.
- 윤택립. 2005. “입양의 문화정치학: 비교문화적 접근을 위한 제언.” 『정신문화연구』 28(1). 71-94.
- 이미선. 2002.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114-144.
- 이미정 외. 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 연구: 해외입양, 관련 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삼돌. 2008.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 한국대중 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서울: 뿌리의 집.
- 이소희. 2012. “초국가적 시민주체: 귀환한 해외 입양인들의 탈경계적 정체성.”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내셔널리즘』. 서울: 보고서. 45-68.
- 이한구. 1994. 『세계를 보고 뛰어라: 글로벌시대, 선진국이 되는 길』. 서울: 동아일보사.
- 임영언·임채완. 2012.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6. 77-104.
- 진정식. 2013. 『피부색갈=꽃색』. 박정연 역. 과천: 길찾기.
- 정겨운. 2018.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만이 최선일까?” 『가톨릭 평론』 13. 120-127.
- 최은주. 2017. “국가적 수치 인정의 정치적 효과와 사과 발언에서 수행성의 문제.” 『수사학』 30. 77-101.



- 쿤치크, 미하엘. 2008. 『국가 이미지 전쟁』. 윤종석·권혁준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프레이저, 낸시 외. 2016. 『불평등과 모욕을 넘어: 낸시 프레이저의 비판적 정의론과 논쟁들』. 문현아 외 역. 서울: 그린비.
- 홀트아동복지회. 2004. 『2003 홀트 연보』. 서울: 홀트아동복지회.
- 휘비네트, 토비아스 외. 2012.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이식된 삶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 서울: 뿌리의 집.

Chanfrault-Duchet, Marie-Françoise. 1991. "Narrative Structures, Social Models, and Symbolic Representation in the Life Story." *Women's Words: The feminist practice of oral history*. 77-92.

HübINETTE, Tobias. 2004. "Adopted Korean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third space'." *Adoption&Fostering*. 28(1), 16-24.

\_\_\_\_\_. 2005.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Representatio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adopted Koreans in Korean popular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Stockholm University.

Rasmussen, Kim Su. 2010. "Transnational Trauma: Reading Adoption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한국라강과현대정신분석학회 학술발표대회 프로시딩. 23-40.

\_\_\_\_\_. 2018. "The Sublime Object of Adoption On Transnational Adoption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Orbis Litterarum*. 73(1). 1-28.

Scheufele, Dietram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Scott, Joan W. 2001. "Fantasy Echo: History and the Construction of Identity." *Critical Inquiry*. 27(2), 284-304.

Stoler, Ann L. 1989. "Making Empire Respectable: The Politics of Race and Sexual Morality in 20th-Century Colonial Cultures." *American Ethnologist*. 16(4). 634-660.

#### 미디어자료

가톨릭평화신문. 2018/05/20. "[생명기획] 4 생명,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책임 있다."

- 경향신문. 1988/04/22. “한국유아 미 입양 연평균 6천명씩.”
- \_\_\_\_\_. 1988/05/04. “어른을 고발한다.”
- \_\_\_\_\_. 1989/01/30. “매년 8천명... 「고아 수출」 세계1위.”
- \_\_\_\_\_. 1995/07/09. “한민족 뿌리찾기.”
- \_\_\_\_\_. 1996/02/04. “경향신문, 여작: 생명 나눠주기.”
- \_\_\_\_\_. 1996/02/05. “제2 제3의 ‘김성덕 군 살리기’ 골수기증운동 불붙었다.”
- \_\_\_\_\_. 1998/02/21. “IMF 시대 잿빛풍경 ‘산부인과 찾는 주부들’ 슬픈 ‘낙태.’”
- \_\_\_\_\_. 1998/03/09. “IMF 시대 ‘흔들리는 사회’ 정신공황 실업자 100만여명 ‘100만 가정의 파탄.’”
- \_\_\_\_\_. 1998/07/20. “성덕 바우만-서한국씨 감동의 재회 ‘골수 의형제’ 어깨동무.”
- \_\_\_\_\_. 2018/05/23. “여가부 ‘낙태죄, 여성 건강권 중대 침해... 재검토해야’ 헌재에 공식의견 제출.”
- 뉴스스. 2017/11/27. “[낙태죄 논란] ‘원치 않는 출산’... 임신경험 청소년 85.4%가 ‘낙태.’”
- 동아일보. 1972/03/28. “최근의 유엔 보고서서 밝혀 산아제한에 낙태수술 으뜸.”
- \_\_\_\_\_. 1984/02/09. “여아입양 늘고 있다.”
- \_\_\_\_\_. 1984/02/13. “홀륭히 자라는 미국 입양아.”
- \_\_\_\_\_. 1984/05/18. “미국입양 어린이 어른되어 모국에.”
- \_\_\_\_\_. 1987/08/28. “어린이 입양 남아 선호 사라져.”
- \_\_\_\_\_. 1988/04/22. “한국 ‘유아수출’ 장려 미 가정에 매년 6천명.”
- \_\_\_\_\_. 1988/05/03.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 길.”
- \_\_\_\_\_. 1988/05/07. “어린이가 상품인가.”
- \_\_\_\_\_. 1988/05/12. “어린이 입양 국외송출 늘고 국내선 소극적.”
- \_\_\_\_\_. 1988/06/02. “금융실명제 조속 실시를.”
- \_\_\_\_\_. 1988/08/17. “해외 입양아 첫 모국 유학.”
- \_\_\_\_\_. 1988/11/17. “‘인구선진’ 사회의 과제.”
- \_\_\_\_\_. 1989/04/04. “해외입양 어린이 수난 심각 ‘고아 수출국’ 오명 빨리 씻자.”
- \_\_\_\_\_. 1994/06/13. “국내 입양 여아 남아보다 많아.”
- \_\_\_\_\_. 1994/09/04. “유엔 인구회의 ‘피임 - 낙태허용’ 날카로운 대립.”
- \_\_\_\_\_. 1997/01/31. “내달 2일 방영 KBS ‘일요스페셜.’”

- \_\_\_\_\_. 1998/06/09. "IMF 신평속도 본보-삼성경제연구소 공동기획(4) '아이 천천히 낳자' '피임 산업' 호황."
- \_\_\_\_\_. 1998/07/21. "'이 에미를 용서해다오' '엄마 저는 원망 안해요' 성덕 바우만, 생모와 비밀리에 상봉."
- \_\_\_\_\_. 1998/07/22. "21년을 기다린 6시간의 만남."
- \_\_\_\_\_. 1999/05/05. "버림받은 어린이 크게 늘었다."
- \_\_\_\_\_. 2017/11/01. "불법 낙태시술 연 10만 건 추정... 태아 5명 중 1명 꼴."
- 말. 1988/03. "아기를 판매합니다 - 한국의 국외 입양 실태." 21, 86-88.
- 여성신문. 2018/06/01. "임신중절 합법화는 세계적 흐름... 한국 등 5개국만 금지."
- 조선일보. 1988/04/24. "고아 수출 세계 1위."
- \_\_\_\_\_. 1988/06/08. "기자수첩: 고아입양."
- \_\_\_\_\_. 1998/07/21. "성덕 바우만씨, 생모와 상봉."
- 프레시안. 2017/09/12. "전두환 정권, '아동 수출'로 한해 200억 벌었다."
- \_\_\_\_\_. 2017/11/15. "입양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인신을 내준 겁니다."
- \_\_\_\_\_. 2017/11/21. "그들은 죽지도 않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
- 한겨레. 1988/09/13. "특집 한국 - 전환의 소용돌이 <마지막 회> 가족은 해체되고 있는가."
- \_\_\_\_\_. 1988/10/02. "우리 아기 외국 보내지 말고 미혼모도 우리들이 돌보자."
- \_\_\_\_\_. 1988/10/11. "해외입양고아 5공때만 5만명."
- \_\_\_\_\_. 1988/10/18. "'한마음 한 몸'으로 통일과 평화 기원."
- \_\_\_\_\_. 1988/10/19. "해외입양 종결대책 촉구."
- \_\_\_\_\_. 1988/11/10. "냉동수정란 시험관 아기 국내서도 탄생."
- \_\_\_\_\_. 1988/11/16. "구차스런 해외입양 변명."
- \_\_\_\_\_. 1989/02/16. "'수출'되는 아기들과 민족의 자존(사실)."
- \_\_\_\_\_. 1997/02/01. "바우만과 한·미 태도 일요스페셜."
- \_\_\_\_\_. 1998/10/24. "김 대통령, 해외입양 동포에 사과."
- \_\_\_\_\_. 2005/02/06. "한국인 최초 스웨덴 왕실 훈장 받은 외대 변광수 교수."
- \_\_\_\_\_. 1996/02/04. "'성덕군·서병장 유전자 일치' 서씨 미국으로 가 끝수이식 수술할 듯."
- \_\_\_\_\_.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_\_\_\_\_. 2020/12/21. “‘낙태죄’ 자동 폐지되지만...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도 표류.”

한겨레21, 2009/05/15. “아기 살 돈으로 친엄마를 지원하라”. 제760호.

한국일보, 1996/12/26. “전·노 재판 공직비리 ‘부끄러운 한 해.’”

\_\_\_\_\_. 1996/07/11. “성덕군 살린 선의들(사실).”

KBS, 1996/01/28. “일요스페셜 - 성덕 바우만 누가 그를 살릴 것인가.”

\_\_\_\_\_. 1997/02/02. “일요스페셜 - 성덕 바우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

*Progressive*, 1988/01, Rothschild, M,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52(1), 18-23.

*The New York Times*, 1988/04/21, “Seoul Journal; Babies for Export: And Now the Painful Question.”

##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of “No. 1 Orphan Exporter” and the Appearance of Compassionate Korean

Oh, Hye Min

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study examines the way Korea and Koreans were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major events surrounding international adoption from 1988, when the country became internationally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just before hosting the Olympics, and the late 1990s, when the story of Brian Sungduk Bauman became widely spread by the media. This historical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adoptions reveals the past practice of stripping away citizenship, the process through which domestic adoption was proposed as the way to reduce international adoption after becoming known as the “No. 1 orphan exporter,” and how the popular narratives of returning international adoptees in search for their “roots” reflect Korea’s struggle to gain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This flow of events became intertwined with the problem of defining responsibilities, that is, who is responsible for which among the many issues and in which way. The emphasis on abstract images of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with “compassionate Koreans” placed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as a bygone problem that is no longer a part of the current nation, shifting the responsibility for ‘abandoned babies’ to their biological single mothers. Admiration and praises over the narratives of Korean adoptees overcoming difficulties and reconciliation with their past placed the burden to resolve the international adoption issue on individuals, again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The problem-solving pattern of relegating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did not change. When the economic crisis narrative emerged in the IMF era, abortion became described immediately as an indispensable choice. The prioritization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repeated once again in the name of becoming a “developed nation.”

■ **Keywords:** International Adoption, Domestic Adoption, Abortion, Korean Adoptees, Orphan Exporter

투고: 2021/03/13 심사: 2021/04/15 확정: 2021/05/20